

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수립의 과업이 시작되던 때부터 그에게 협조해오며 과업을 시작하는 도구가 된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협조적인 자녀들 모두의 행운을 보며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수립의 계획을 보았다. 그는 고귀한 브라민들의 세계가 시작된 시기의 역사와 지리를 보았다. 각 장소에서 고귀한 어느 영혼들이 언제 정확하게 협조하고 있는지 그는 보았다. 그 외에 그가 또 무엇을 보았겠느냐? 그는 세 가지 유형의 협조적인 자녀들을 보았다. 첫째 유형은 밥다다의 알로키한 과업을 보았을 때, 그의 매력적인 형상과 영적인 얼굴을 보았을 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의 노력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지난 사이클을 의식하는 산스카르가 즉시 드러난 자들이다. 1초 이내에 “이분이 바로 나의 그 바바다!” 라는 인식이 그들의 가슴에 솟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아무 노력 없이도 너희는 쉽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잠기었고 협조적이 되었다. 너희는 7일 코스를 공부하는 데서도 어려운 일은 할 필요가 없었지만, 신의 사랑이라는 힘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단 한 마디로 너희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자녀인 너희들은, “오직 당신만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오직 너만이 나의 것이다!”라고 했다. 노력은 없었다. 아무 노력 없이 1초 만의 이 협상을 맺은 자들은 사랑 속에 잠기게 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결한 도구 영혼들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버림, 타파샤, 봉사를 보며 협상을 한 자들이다. 첫째 유형은 아버지를 보았다. 둘째 유형은 지식의 갠지스 강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들은 지각의 힘으로 쉽게 아버지를 알게 되어 협조적이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 그룹도 역시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들은 무체인 분과 육신 형태로 모든 관계를 다 성취했다. 이처럼 육신인 분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다 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경험을 다 가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양의 승강기를 선물로 받았다. 수백만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또 그 소수에서도 오직 서넛만이 이 행운을 달성했다. 본래의 영혼들로 구성된, 승강기를 선물로 받았고 수립이라는 과업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봉사 현장으로 나갔던 이 그룹이 여기에 초대받아서 왔다. 사실, 도구인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오직 소수만이 특별히 초청되어왔다. 너희들이 왜 초대되었는지 아느냐? 기반은 시시때때로 점검된다. 기반이 약간이라도 약하다면 그 경우엔 그것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준다. 봉사 현장에서는 너희들 같은 보석들이 기반, 즉 봉사의 도구들이다. 첫 번째 그룹은 이야기의 수립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봉사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 봉사의 첫 번째 가시적인 결실은 바로 너희들의 이 그룹이다. 이처럼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봉사의 가시적 결실로서의 도구 혹은 진열장 안의 으뜸인 대표작이 되었다. 이 정도로 너희들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느냐? 본래의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새로운 앞들이 확장되는 가운데 그 광채, 아름다움, 열성, 열의 속에 숨겨지지 않았다. 뒤에 있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뒤로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밥다다조차 그의 자녀들을 그의 앞에 두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앞세웠다고 해서 그가 뒤로 간 것은 아니다. 일부 자녀들은 나중에 온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영리하게 바바에게 대답한다. 남들에게 기회(찬스)를 줘도 되지만 그럴더라도 너희는 최소한 수상(찬슬러)으로 남아 있어야! 이 정도로 너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느냐? 너희가 어떤 노력의 조치를 취하든, 너희를 보는 남들도 똑같은 열성과 열의로 너희와 같게 할 것이다. 너희는 변함없이 이 의식을 갖고 있느냐? 새로운 자들은 새롭지만, 오래된 자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래된 앞들에서 참으로 많은 종류의 의약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아느냐? 오래된 물건들에는 참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다. 오래된 물건들은 특별한 기념물이 된다. 옛 물건인 골동품들을 위해서 특별한 박물관들이

지어진다. 오래된 이들을 알면서 너희는 그 가치에 따라 모든 발걸음을 옮기며 지내느냐?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값어치 매길 수 없이 귀한 보석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아버지처럼 날아다니는 새냐?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에게서 받은 부양에 대해 보답하고 있는냐? 이 육신의 부양은 평범한 부양이 아니다. 더 없이 귀한 이 부양에 대한 보답은 값을 매길 수 없게 되고 남들을 더 없이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답은 너희들의 삶에서 모든 발걸음을 특별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보답하고 있는냐?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는 이 부양을 한번만 받는데 특별한 영혼인 너희에게는 그 권리가 있다. 너희 권리의 행운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오늘 바바는 그렇게 복 많은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너희가 왜 초대되었는지 이해하느냐? 바바는 당연히 결과를 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육안으로 아버지 브라마를 보았으니 이 그룹 전체가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신성한 시선만으로 그를 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따르기는 쉽다. 너희는 행운과 쉽게 노력할 권리를 가진 영혼들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이해하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수수께끼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잊지 않을 테지? 이 그룹을 보면서 밥과 다다는 서틀리전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들은 너희들이 각자 제 스스로의 행운의 가치를 얼마나 아는지, 또 얼마나 그 행운에 대한 의식의 화신으로 머무는지도 역시 보았다. 의식의 화신은 힘의 화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어느 정도로나 힘의 화신이 되었는지 보려고 지켜보았다. 너희는 망각과 기억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의식의 형태로 날아다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냐? 오래된 자들이 여전히 오래된 방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너희가 아직껏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지 못하고 사다리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 바바는 자녀들 모두의 방법들을 보았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 아버지 브라마는, “쉽고 고귀한 성취의 토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인 나와 대등해져서 아버지 브라마에게서 받은 한 가지, 즉 ‘손에 쥘 것을 놓는다면 너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너희 삶 속에서 행운의 부적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몸에 대한 의식을 잊고 영혼의식이 되는 것이든, 관계, 성질, 산스카르에 대한 애착이라는 측면에서 애착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봉사 분야나, 성질, 산스카르라는 면으로 남들과의 연관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면 너희는 만사에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의 것이라는 이 의식의 손은 너희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붙들게 해서 너희는 가지를 꼭 움켜쥐고 있는 새처럼 된다. 만일 나의 것이라는 의식의 손을 놓는다면 너희는 무엇이 되겠느냐? 날아다니는 새들은 “나는 손을 놔야 해! 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강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 지원의 형상인 고귀한 영혼들아,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며 축하하는 행사를 가져라.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가 아니다. 어떤 축하행사를 열 것인지 생각해 두었느냐? 모든 그룹마다 각기 축하행사를 거행하지 않느냐? 너희 모두 어떤 축하예식을 가지려느냐?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브라마와 함께 하는 동반자 자녀들 아니냐? 너희는 신의 가족에 속하는 성숙한 영혼들이다. 밥다다와 가족들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눈길을 주고서 원래 그들의 본보기로서 너희를 본다. 너희는 가족 전체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희망의 등불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축하 의식을 행하려느냐? 너희는 아버지와 대등해졌다. 너희는 삶 속에서 해방된 영혼들이 되었다. 너희는 애착의 정복자들, 기억의 화신들이 되었으므로 따라서 힘의 화신이 되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너희는 그렇게 되었다. 자 이젠 그렇게 강력한 축하예식을 열어라.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아직도 “난 이 일을 해야만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냐? ‘해야만 돼’가 아닌, “우리는 아버지의 소망을 모두 이루어드리는 본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해”가 되게 해라. 지각에 믿음을 가진, 그렇게 승리하는 보석들은 승리의 이 축하예식을

축하해야 한다. 너희가 왜 초대받았는지 이해하느냐? 이것이 이젠 분명하지 않느냐? 그들 모두에게 왕관을 씌워줘라! 그들이 이 책임을 맡는, 즉위식을 축하하게 해라. 너희가 온 것은 이유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은 늙었느냐?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한 순간 그는 나이 먹고 원숙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어린 아이였다. 너희들은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따라라. “하 지”라 하는 데서는 어린 아이가 되고, 봉사에서는 나이 들고 성숙해져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의 빛나는 광채를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참으로 즐거워하며 “하 지! 지 하!”라 한다.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은 특별한 초대를 받아 여기에 왔다. 이제는 봉사의 책임을 맡는 축하예식을 다시 한 번 특별히 거행해라. 그 중간에 시시때때로 너희는 왕관을 벗는다. 자 이제는 왕관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 써라. 오케이, 축하예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다른 때 듣겠다. 앗차.

모든 영혼을 위한 도구로서 그들에게 열성과 열의를 주는 자들에게, 노력의 각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남들을 집중적인 노력가로 만드는 자들에게, 1초에 낭비를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자들에게, 봉사에서 원래의 보석들에게, 부양의 행운을 가진 특별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봉사자들을 만나심 .

야기야에 봉사하는 일은 큰 힘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항상 날아다녀야 합당하다. 따라서 봉사자인 너희들은 강력해지지 않았느냐? 야기야에 대한 봉사는 참으로 많이 칭송된다. 정직한 마음으로 야기야에 봉사한다면 매 1초1초가 큰 결실을 가져온다. 너희들 모두 아주 여러 날 동안 봉사해왔다. 그래서 결실이 보물창고에 쌓였다. 너희가 그것에서 21세대 동안 계속 먹고살 만큼 크나큰 결실이 쌓여왔다. 너희 봉사자들은 돌아가서 마야에게 영향 받지 마라. 끊임없이 봉사하며 항시 바쁘게 지내라. 너희의 마음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봉사하고, 너희의 관계, 연결, 말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봉사해라. 봉사하며 변함없이 바쁘게 지내라. 봉사의 역할은 불멸한다. 너희가 여기에 머물든 다른 어디에 가든, 봉사자는 언제나 한창 봉사하는 중이다. 너희는 항시 봉사자들이다. 너희가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면 마야는 너희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소가 비어있으면 남들이 그리로 가고, 모기와 빈대 등이 모여든다. 그러한즉 한결같이 분주하게 지내라, 그러면 마야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힘써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야가 너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가버릴 것이다. 너희는 마치 매우 웅감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다. 너희가 돌아가서 “오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늘 저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애착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마야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가 약속하는 소리를 마야도 역시 귀담아 듣는다. 아버지가 있는 데서 마야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한결같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떨어져 있느냐? 너희 쿠마르들은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 내게 말을 거는 이도 아무도 없어. 만일 내가 병에 걸려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희는 다른 친구들을 기억하지는 않겠지? 만일 다른 동료를 데려간다면 너희는 그 동료의 말을 들어줘야 할 것이고 그 동료를 먹여주고 돌봐야 할 것이다. 그런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한결같이 가볍게 지내라. 변함없이 결합된 형태로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다른 동반자에게 뭘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너희가 병으로 아플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관계가 뭐든 아버지를 그 관계로 기억해라. 그러면 비록 너희가 병에 걸려 누워 있더라도 마치 다른 어떤 이가 와서 대신 요리해준 듯 그렇게 참으로 훌륭한 음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라! “나는 혼자야!”가 아니라, “나는 결합되어 있어”다. 너희들과 아버지, 양쪽이 결합되어 있다. 아무도

너희를 분리시킬 수 없다. 너희는 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너희는 겁먹는 자들이 아니라, 도전장을 던지는 자들이다. 앗차.

질문 : 합류시대 브라민 생의 목표는 무엇이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나?

대답 : 합류시대 브라민 생의 목표는 한결같이 충족된 상태로 머물며 남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브라민들이란 지각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제 스스로도 충족된 채 머물면서 남들도 충족시켜준다. 남들 때문에 불만스러워진다면 너희는 합류시대 브라민 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힘의 화신이 되어 남들의 분위기에서 너희가 벗어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남들의 불만을 통해서 너희가 불만스러워지도록 허용하지 마라. 남들이 어떤 식으로 너희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해도 너희는 단지 거기서 벗어나 계속 전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질문 : 너희가 끊임없이 날도록 너희 본래의 산스카르가 나오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

대답 :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너희들 본연의 산스카르가 나오게 해라. 남들이야 전진하든 말든 상관없다. 남들을 따름으로써 너희들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동정심을 갖고 협조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남들 때문에 너희가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낭비적인 것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낭비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마라. 봉사하려는 의도로 초연하게 모든 것을 보라. 남들로 인해서 너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너희의 행복을 잃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아다닐 것이다.

Blessing: 아버지와 똑같아지고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축복을 받아서 끊임없이 만남의 그네를 타라.

밥다다가 주인인 너희들의 지시에 순종해서 너희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려고 오고, 또 “주인님, 와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임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암릿 벨라부터 하루가 끝나는 시간까지 너희의 다르마 (종교)와 카르마 (행위)에서 아버지와 같아져라, 그러면 너희는 끊임없이 만남의 그네를 계속해서 탈 것이다. 너희가 만남의 그네를 타며 머물 때는 물질과 마야, 양쪽 모두 너희들의 하인이 되어 너희의 그네를 밀어준다. 보물들 모두 너희들의 고귀한 그네의 장식이 될 것이다.

Slogan: 아버지 브라마의 품에 한결같이 안겨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을 경험할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